

## 아이젠크 성격검사와 한국판 성격장애 검사를 이용한 공황장애 환자의 성격특성및 임상증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김 의 정 · 김 영 철

= Abstract =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Assessed by PDQ-R and EPQ and Their Links with Panic Symptoms

Eui Jung Kim · Young Chul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and to assess the links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duration, frequency, and severity of panic symptoms.

**Methods** : Thirty-six patients meeting DSM-IV criteria for panic disorder(patient group) and thirty-six normal controls were assessed by the PDQ-R and EPQ.

**Results** :

1) Panic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show avoidant( $p < 0.05$ ), obsessive-compulsive( $p < 0.01$ ), histrionic( $p < 0.01$ ), borderline( $p < 0.001$ ) and paranoid( $p < 0.05$ ) personality scales than controls. The scores of total PDQ-R ( $p < 0.01$ ), cluster B( $p < 0.001$ ) and cluster C( $p < 0.01$ ) personality disorder and traits in panic pati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s.

2) Panic pati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controls on the EPQ factors of N( $p < 0.01$ ) and significantly lower scores than controls on the EPQ factors of E( $p < 0.05$ ).

3) The frequency of panic attack and severity of panic symptoms in panic patien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luster A personality disorder( $p < 0.05$ ) and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p < 0.01$ ), respectively.

**Conclusion** : The above results revealed that panic patients were more avoidant, obsessive-compulsive, histrionic, borderline, and paranoid than controls. The author also noted that panic patients were more introverted and neurotic than controls. Some clinical features of panic disorder and a part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hese results support the previous findings that there was a possible link between panic disorder and personality disorder.

**KEY WORDS** : Panic disorder · Personality · PDQ-R · EPQ.

## 서 론

인격장애는 정신과의 진단 기준인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체계가 DSM-III<sup>1)</sup>로 개정되고 하나의 독립된 진단 차원으로 규정되면서 제2축 질환으로 분류되었다. DSM-III의 다축 진단 체계의 도입과 함께 제1축과 제2축 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2,3)</sup>. 주요우울장애나 공황장애와 같은 특정한 제1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의 인격장애 유형들에 대한 몇몇 결과들도 그중 하나이다<sup>4)</sup>. 여러 보고들을 종합해보면 두 장애의 동시이환율은 26~58% 정도로 높은 비율이며<sup>5-10)</sup>, 공포성 회피가 심할수록 인격장애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sup>9)</sup>, 광범위한 공포성 회피가 있는 경우 70%에서 인격장애가 있었으나 제한적인 경우엔 47% 정도였다<sup>5)</sup>.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환자에서는 의존성, 회피성, 연극성 인격장애가 흔히 공존하며 드물게는 경계성 인격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sup>3,11)</sup>. 공황장애에서 이러한 인격장애 및 성향의 공존은 치료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sup>7,12)</sup>, 만성화를 초래하고<sup>13)</sup>, 치료 중단시 재발이 잘 되며<sup>6)</sup>, 치료 순응도가 낮아 치료시 조기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sup>14)</sup>. 또한 이러한 인격장애 및 성향은 공황장애의 심각도와 연관이 있으며<sup>3,11)</sup>, 공황장애가 치료되면 인격장애도 동시에 개선되지만 회피성 인격은 공황장애 치료 후에도 지속된다고 하였다<sup>15)</sup>.

지금까지는 공황장애와 제2축 질환사이에 특이연관(specific link)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공황장애 환자들의 성격특성이 이질적인 정신과 외래 환자 집단, 즉 주요우울장애,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등에서도 흔히 보고되기 때문이다<sup>3,16)</sup>. 공황장애에서의 성격특성 중 일부는 발병 이전부터 환자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반면, 공황발작 자체가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공황장애와 인격장애에 대한 연관성에 대하여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형편이다<sup>17)</sup>. 또한 제1축 질환의 진단과는 달리 제2축 인격장애에 대한 평가는 제1축 질환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이 쉽지 않으며, 그 사용 방법에 대한 논란도 많아 연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성격특성의 측정법에는 범주형 접근(categorical ap-

proach)과 차원적 접근(dimensional approach)이 있으며, 범주형 접근은 진단 분류에 주로 중심을 두는 방법이고, 차원적 접근은 진단 분류나 단순히 성격의 특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차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차원적 모델은 일반적으로 범주형 모델에 비해 우월하며, 특히 연구 목적으로는 더욱 우월하다고<sup>18)</sup> 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범주형 접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차원적 접근에 의한 연구<sup>19-21)</sup>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저자는 범주형 접근의 도구인 Personality Disorder Questionnaire-Revised<sup>22)</sup> (이하 PDQ-R)와 성격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차원적 접근의 도구인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sup>23,24)</sup> (이하 EPQ)를 이용하여 성격특성을 측정하였다. 자기보고형 검사인 PDQ-R은 구조화 면접검사보다 특이도(specificity)는 높지 않으나 민감도(sensitivity)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검사는 인격장애를 과다 진단내린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용과 채점이 간편하여 비교적 쉽게 인격장애의 유무를 가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체계적 면접검사를 하기전에 인격장애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sup>25)</sup>. EPQ는 성격에 대한 3차원적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강인성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tough mindedness, psychoticism, P),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 E), 정서성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 등의 중요한 성격차원적 요인의 특징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외향성-내향성(E)척도는 사교성, 활동성, 흥분성 등을 평가해주고, 정신병적 경향성(P)척도는 공격적이고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충동적인 성향을 평가해주며, 신경증적 경향성(N)척도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과 특질적인 근심, 불안, 우울 성향을 평가해준다<sup>23,24)</sup>.

본 연구에서는 PDQ-R과 EPQ를 이용하여 공황장애 환자에서 동반되는 인격장애 및 성격차원을 조사하고, 성격특성과 공황증상의 심각도, 공황발작 빈도 및 이환기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공황장애와 성격특성이 서로 특이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1997년 9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이대목동병원 정

신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들중 DSM-IV<sup>1)</sup>의 공황장애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환자 36명을 환자군으로 하였고, 치료중이거나 신환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대조군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정신과 치료의 경험이 없는 36명으로 하였다.

## 2. 연구방법

성격특성은 자기 보고형 검사인 PDQ-R과 EPQ로 평가하였다. PDQ-R<sup>2)</sup>은 DSM-III-R의 진단기준에 맞추어 개발한 것으로 11개 인격장애외에 가학적, 자기패배형 인격장애가 포함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PDQ-R<sup>3)</sup>을 이용하여 11개의 인격장애 항목과 DSM-III-R에 의한 인격집단 분류(cluster A, cluster B, cluster C), PDQ-R총점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시빌 아이젠크와 이현수<sup>4)</sup>의 한국판 EPQ를 사용하여 두 집단간의 성격차원을 비교분석하였다.

공황증상의 심각도는 DSM-IV의 진단기준을 번역한 뒤 각 문항에 대하여 0부터 4점까지 환자가 스스로 측정하도록하여 그 총점으로 평가하였다(0점=증상이 없다, 1점=약간 심하다, 2점=웬만큼 심하다, 3점=꽤 심하다, 4점=아주 심하다). 공황증상에 대한 평가로 공황증상의 빈도는 한달에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횟수를 기록하였고 이환기간과 초발연령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 모든 검사는 연구 대상자가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경우 실시하였다.

## 3. 통계처리

SPSS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두 집단간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격특성은 t-test와  $\chi^2$ -test로 비교 분석하였고, 성격특성과 공황장애의 이환기간, 공황발작 빈도, 공황증상 심각도사이의 상관성은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결 과

## 1.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환자군과 대조군은 나이,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고용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환자군에서의 평균 이환기간은 4.65( $\pm$ 5.7)년, 초발연령은 33.6( $\pm$ 17.9)세였고, 한달에 경험하는 공황발작의 빈도는 평균 8.2( $\pm$ 9.9)회였으며 공황증상의 심각도 지수는 27.6( $\pm$ 11.0)이었다.

환자군의 진단은 공황장애가 20명(55.6%),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가 16명(44.4%)이었다. 이중 공황장애외에 다른 제1축 진단을 갖고 있는 환자가 4명(11.1%)으로 주요우울장애가 2명, 만성 정신분열증 잔류형이 1명, 신체화장애가 1명이었다.

## 2. 인격장애 및 성격특성의 비교

PDQ-R을 이용한 검사에서 11개의 인격장애중 회피

Table 1. Demographic data

	Panic disorder (N=36)	Control (N=36)	p
Age(mean)	37.5 $\pm$ 5.5	38.1 $\pm$ 8.8	NS
Sex(% female)	35.2%	37.6%	NS*
Marital status (% married)	41.8%	34.2%	NS*
Education(yrs)	13.9 $\pm$ 3.7	14.8 $\pm$ 2.0	NS
Employed(%)	49.3%	52.1%	NS*

NS : Non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5$  by t-test and  $\chi^2$ -test(\*)

Table 2. Mean scores of the PDQ-R and EPQ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and controls

	Panic disorder	Control	p
Schizoid cluster			
Paranoid	1.8 $\pm$ 1.6	1.0 $\pm$ 1.5	<0.05
Schizoid	1.2 $\pm$ 1.1	1.0 $\pm$ 0.8	NS
Schizotypal	1.9 $\pm$ 1.9	1.5 $\pm$ 1.7	NS
Total	4.5 $\pm$ 3.5	3.7 $\pm$ 3.1	NS
Dramatic cluster			
Antisocial	1.7 $\pm$ 1.3	1.3 $\pm$ 1.3	NS
Borderline	5.36 $\pm$ 2.3	2.9 $\pm$ 1.7	<0.001
Histrionic	4.7 $\pm$ 2.3	3.0 $\pm$ 2.2	<0.01
Narcissistic	3.6 $\pm$ 2.3	3.3 $\pm$ 1.7	NS
Total	16.4 $\pm$ 6.5	10.6 $\pm$ 4.9	<0.001
Anxious cluster			
Dependent	3.4 $\pm$ 1.0	2.9 $\pm$ 1.1	NS
Avoidant	2.1 $\pm$ 1.0	1.3 $\pm$ 1.0	<0.05
Obsessive-compulsive	2.1 $\pm$ 1.0	1.4 $\pm$ 1.1	<0.01
Passive-aggressive	2.1 $\pm$ 1.2	1.7 $\pm$ 1.3	NS
Total	9.9 $\pm$ 2.3	7.7 $\pm$ 3.1	<0.01
Total PDQ-R	32.1 $\pm$ 9.7	21.9 $\pm$ 9.1	<0.01
P	50.72 $\pm$ 7.8	48.5 $\pm$ 6.8	NS
E	44.5 $\pm$ 10.4	52.9 $\pm$ 12.4	<0.05
N	53.1 $\pm$ 10.9	43.5 $\pm$ 11.9	<0.001

NS : non significance at the level of  $p < 0.05$  by t-test  
P : psychoticism, E : extraversion-introversion  
N : neuroticism

성( $p < 0.05$ ), 강박성( $p < 0.01$ ), 경계성( $p < 0.001$ ), 연극성( $p < 0.01$ ), 편집성( $p < 0.05$ ) 인격장애 척도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PDQ-R 총점( $p < 0.01$ ), B형 인격 장애 집단의 총점( $p < 0.001$ ), C형 인격 장애 집단의 총점( $p < 0.01$ )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PQ의 비교에서 P척도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E척도( $p < 0.05$ )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N척도( $p < 0.01$ )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 3. 공황장애의 임상척도와 성격특성간의 상관관계

공황장애의 임상척도인 이환기간, 공황발작 빈도, 공황증상 심각도와 성격특성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A형 인격 장애 집단과 공황발작 빈도( $r = 0.3596$ ,  $p < 0.05$ ), 공황증상의 심각도와 분열형 인격장애( $r = 0.4947$ ,  $p < 0.01$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 고 찰

공황장애환자들은 인격장애를 흔히 동반하며<sup>5)</sup>, 공황장애와 인격장애의 동시이환은 특히 치료, 순응도, 예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sup>6)</sup>. 인격장애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 공황장애의 초기 증상이 심하며<sup>12)</sup>, 정신 및 약물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sup>6)13)</sup>, 중단시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6)</sup>. 또한 인격장애 동반 유무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sup>27)</sup>.

공황장애환자에서 동반되는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들<sup>3)11)12)</sup>에 의하면 주로 회피성, 의존성, 연극성 성격이 흔하게 동반되고, 이외에도 경계성, 분열형<sup>3)11)</sup>, 또는 편집성 및 강박성 성격<sup>26)</sup> 등이 동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PDQ를 이용한 Reich와 Troughton<sup>8)</sup>의 연구에 의하면 A, B, C형 인격 장애 집단의 비율은 각각 34%, 27%, 38%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PDQ-R을 이용한 조사에서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회피성, 강박성, 경계성, 연극성 등의 인격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존성, 회피성, 연극성, 경계성 인격장애가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들<sup>3)8)11)29)</sup>과 유사하였다. 반면, 의존성 인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Pollack 등<sup>30)</sup>과 Mavisskalian과 Hamann<sup>12)</sup>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이는 평가당시 환자들이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효과로 의존성 인격이 호전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Neenan 등<sup>31)</sup>은 만성 공황장애는 장기간동안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이차적으로 분열형, 분열성, 편집성 등의 인격을 유발한다는 보고를 한 바 있고 Reich와 Braginsky<sup>32)</sup>는 회피 행동이 심한 경우 편집성 인격장애가 54%나 된다고 하였으며, 편집성 인격의 공황장애는 조기에 발병하고, 이환기간이 길며, 심한 정신 병리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편집성 인격장애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채영래 등<sup>29)</sup>과 Flick 등<sup>28)</sup>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전 연구 결과들은<sup>5-10)</sup> DSM의 진단기준상 A형 인격장애 집단에 속하는 인격장애는 0~12%(평균 5.2%), B형은 6~19%(평균 12.6%), C형은 19~40%(평균 29.6%) 정도이며, 불안하고 겁 많은 것이 특징인 C형 인격 장애 집단이 공황장애와 가장 관련이 많은 반면 과상하고 편벽한 것이 특징인 A형 인격장애 집단은 가장 적었다. Hoffart와 Martisen<sup>33)</sup>도 공황장애에서는 흔히 C형 인격장애 집단이 동반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랜 기간동안 C형 인격장애 집단이 지속되던 공황장애에 취약해지거나, 반대로 오랜 공황장애로 대인관계와 기능상의 장애가 오고 결국에는 인격의 기능이상이 후유증으로 남았거나, 아니면 C형 인격장애 집단과 공황장애에 공통으로 잠재하는 위험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모두에서 C형 인격장애 집단이 우세하므로 C형 인격장애 집단과 공황장애의 관계는 비특이적이라는 주장도 있다<sup>10)34)</sup>. 본 연구에서 PDQ-R의 A형 인격장애 집단(schizoid cluster), B형 인격장애 집단(dramatic cluster), C형 인격장애 집단(anxious cluster)에 대한 비교 분석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환자군에서 B형, C형 인격장애 집단에 대하여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위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공황장애에서 EPQ를 이용하여 성격특성을 조사한 Mavisskalian과 Hamann<sup>35)</sup>의 연구에서 PDQ 점수의 중앙값으로 인격장애를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인격장애가 높은 군에서 N척도가 더 높고 E척도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EPQ이용 조사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환자군에서 외향성-내향성 척도(extraversion-introversion, E)는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정서성 혹은 신경증적 경향

성 척도(neuroticism, N)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Mavisskalian과 Hamann<sup>36)</sup>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황장애에 환자들의 내향적이고 정서적인 경향을 시사해준다. E 척도가 낮은 내향적인 경향의 사람은 항상 조용하며 사람과 어울리기 보다는 독서하고 사색하는 것을 즐기고, 친구가 별로 많지 않으나 일단 사귀면 친구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도덕 관념이 투철하나 비판적인 경향이 있고 정서성 척도(N)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정신신체적 질병을 호소하는 일이 많으며, 정서적 반응은 예민하고 쉽게 회복이 되지 않으며, 기분의 변화가 심하여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지나칠 만큼 예민하게 반응한다<sup>23)24)</sup>.

그러나 이러한 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정서성)이 과연 공황장애의 소인인지 아니면 공황장애의 결과로 유발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황장애의 성격특성과 임상증상간의 연관성에 대해 Mavisskalian과 Hamann<sup>36)</sup>은 인격장애에 대한 예견인자나 결정인자는 공황증상의 이환기간과 심각도라기 보다는 신경증, 스트레스, 불쾌감, 대인관계의 민감도와 같은 일반적인 특징들이라고 보고한 바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황장애의 심각도(severity)와 인격장애 및 성향은 유의한 정도의 공변성(covariation)을 가진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공황장애가 치료되면 인격장애의 증상도 함께 개선된다고 보고하였다<sup>31)</sup>. 이외에도 인격장애가 공존하면 만성적 경과를 밟는다 하였으며<sup>6)7)12)30)</sup>, Pollack 등(1992)도 공황장애 환자에서 평균 8.5년의 이환기간동안 2개월간의 관해기간을 한 번도 겪지 못한 환자가 약 3/4가량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성격특성과 공황장애사이에 특이연관(specific link)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격특성과 공황장애의 이환기간, 공황발작의 빈도, 공황증상의 심각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공황발작의 빈도와 A형인격장애 집단 척도사이( $r=0.3596$ ), 그리고 공황증상의 심각도와 분열형 인격장애 척도 사이( $r=0.4947$ )에서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이 환기간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Neenan 등<sup>31)</sup>은 만성 공황장애환자에서 유발된 분열성 인격장애의 증례를 보고하면서 공황장애의 이환기간이 긴 경우 이차적으로 분열형, 분열성, 편집성 등의 인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Reich와 Braginsky<sup>32)</sup>는 회피 행동이 심한 경우 편집성 인격장애가 54%나 동반되며, 특히 편집성 인격의 공황장애는 조기에 발병하고, 이환기간이 길며, 심한 정신 병리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임상증상이 심할수록 괴상하고 편벽한 A형 인격장애 집단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A형 인격장애 집단의 환자들이 임상증상을 주관적으로 더 심하게 호소하는지에 대하여는 결론 지을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공황장애의 연구에서 C형 인격장애 집단과의 연관성에만 초점을 두어오던 것에서 공황장애와 A형 인격장애 집단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제시한다는데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것이며 특히 공황장애와 임상증상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앞으로 더욱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성격특징들이 공황장애의 단순한 전구증상에 불과한지, 아니면 공황장애에 대해 소인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장기간 불안에 노출되어 이차적으로 유발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sup>3)5)38)</sup>이 있었으나 공황장애와 인격장애 사이의 연관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규명을 내리지 못했다. 성격적 특성이 제 1축 질환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 전향적 연구들<sup>37)38)</sup>에서도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만을 제시했을뿐이다. Mavisskalian<sup>3)</sup>은 공황장애와 몇몇 인격성향은 공통의 질병체질(common diathesis)의 다른 표현일뿐이라고 하였다. 즉 공황장애와 인격장애는 아동기에 불안을 유발하는 공통의 생물학적 혹은 환경적 위험 요인의 분리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황장애에 아주 취약한 아동은 어릴 때 부끄러움이 많고, 공포스러워 하며 낮을 많이 가리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성향은 아동기의 불안에 대한 질병체질의 조기 표현이며, 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공황장애나 광장공포증으로 나타나게 된다<sup>39)</sup>. 이는 아동기의 불안장애는 성인기의 인격장애와 연관이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제 1축이나 제 2축 병리로 표현되어질수 있다는 Pollack 등<sup>30)</sup>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록 구조화 검사와 PDQ-R의 일치율이 높다는 보고<sup>9)</sup>도 있으나 자기 보고형 검사인 PDQ-R은 인격장애를 과다진단내림으로써, 인격장애의 동시이환 평가에서 가장 신뢰성 있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구조화 면담검사보다는 다

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판은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는 실시되었으나 아직 표준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공황장애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에서 성격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공황장애환자들에서 보이는 성격특성은 다른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sup>316)</sup>가 있으므로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황장애와 다른 불안장애나 우울장애군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로,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보이는 성격특성의 일부는 공황장애가 치료됨에 따라 함께 호전된다<sup>317)</sup>고 알려져 있으므로 환자군의 치료상태에 따라 연구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공황장애의 급성기 환자와 만성환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부족하였다.

앞으로 공황장애와 인격장애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더욱 체계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향적인 장기추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연관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더욱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 요 약

공황장애환자에서의 성격특성을 조사하고 공황장애의 임상척도와 성격특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DSM-IV 진단기준을 만족시키는 공황장애 환자군 36명과 대조군 3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형 성격검사 도구인 PDQ-R과 EPQ로 성격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환기간, 공황증상 심각도, 공황발작 빈도 등의 공황장애 임상척도와 PDQ-R과 EPQ의 각 성격검사 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나이, 성별, 결혼여부, 고용상태, 교육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환자군에서 공황장애의 초발연령은 평균  $33.6 \pm 17.9$ 세, 이환기간은  $4.65 \pm 5.7$ 년, 공황발작 빈도는 한달에  $8.2 \pm 9.9$ 회, 공황증상 심각도는  $27.6 \pm 11.0$ 이었다.

2) PDQ-R검사를 이용한 성격특성 비교에서는 회피성( $p < 0.05$ ), 강박성( $p < 0.01$ ), 경계성( $p < 0.001$ ), 연극성( $p < 0.01$ ), 편집성( $p < 0.05$ ) 인격장애와 PDQ-R 총점( $p < 0.01$ ), B형( $p < 0.001$ ), C형( $p < 0.01$ ) 인격장애 집단의 점수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EPQ 검사에서는 N척도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 $p < 0.001$ ) E척도는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p < 0.05$ ).

3) 성격특성과 공황장애 임상척도의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공황발작 빈도와 A형 인격장애 집단( $r = 0.3596$ ,  $p < 0.05$ ), 공황증상 심각도와 분열형 인격장애 사이( $r = 0.4947$ ,  $p < 0.01$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공황장애 환자에서는 회피성, 강박성, 경계성, 연극성, 편집성 인격장애 및 성향이 흔히 동반되며 내향적이고 정서적(신경증적)인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특성중 일부는 공황증상의 심각도나 공황발작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황장애와 인격장애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연관성의 본질에 대한 추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References

-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ton, DC. 1994*
- 2) Klass ET, DiNardo PA, Barlow DH : *DSM-III-R personality diagnosis in anxiety disorder patients. Compr Psychiatry 1989 ; 30 : 251-258*
- 3) Mavissakalian M : *The relationship between panic disorder/agoraphobia and personality disorders. Psychiatr Clin North Am 1990 ; 661-684*
- 4) Reich J and Troughton E : *Comparison of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in recovered depressed and panic disorder patients. J Nerv Ment Dis 1988 ; 176 : 300-304*
- 5) Friedman CJ, Shear MK, Frances A :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in panic patients. J Pers Disord 1987 ; 1 : 132-135*
- 6) Green M, Curtis GC : *Personality disorders and panic patients : Response to termination of antipanic medication. J Pers Disord 1988 ; 2 : 303-314*
- 7) Reich JH :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nd outcome of treated panic disorder. Am J Psychiatry 1988 ; 145 : 1149-1152*
- 8) Reich J and Troughton E : *Frequency of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 comparison with psychiatric and normal control subject. Psychiatry Res 1988 ; 26 : 89-100*
- 9) Brooks RB, Baltazar PL, Munjack DJ : *Personality*

- disorders with panic disorder, social phobia,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Anxiety Disord* 1991 ; 3 : 259-285
- 10) Sanderson WC, Weltzer S, Beck AT, Betz F : *Prevalence of personality disorders among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s. Psychiatry Res* 1994 ; 51 : 167-174
  - 11) Noyes R Jr, Reich JH, Suelzer M, Christiansen J :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panic disorders : change associated with treatment. Compr Psychiatry* 1991 ; 32 : 283-294
  - 12) Mavissakalian M, Hamann MS : *DSM-III personality disorder and agoraphobia II : changes with treatment. Compr Psychiatry* 1987 ; 28 : 356-361
  - 13) Noyes R Jr, Reich JH, Christiansen J, Suelzer M : *Outcome of panic disorder. Arch Gen Psychiatry* 1990 ; 47 : 809-818
  - 14) Wingerson D, Sullivan M, Dager S, Flick S, Dunner D, Roy-Barne P : *Personality traits and early discontinuation from Clinical Trials in anxious patients. J Clin Psychopharmacol* 1993 ; 13(3) : 194-197
  - 15) Mavissakalian M, Hamann MS : *DSM-III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patients in stable remission. Compr Psychiatry* 1992 ; 33(5) : 305-309
  - 16) Mavissakalian M, Hamann MS, Jones B : *A comparison of DSM-III personality disorder in panic/agoraphobia,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Compr Psychiatry* 1990 ; 31(4) : 238-244
  - 17) 이호영 : *공황장애*. 서울, 중앙문화사 1992 ; 221-242
  - 18) Widiger TA : *Categorical versus dimensional classification : implications from and for research. J Pers Disord* 1992 ; 6 : 287-300
  - 19) Faravelli C and Albanesi G : *Agoraphobia with panic attacks : one year prospective follow-up. Compr Psychiatry* 1987 ; 28 : 481-487
  - 20) Saviotti FM, Grandi S, Savron G, Ermenteni R, Bartolucci G, Conti S, Fava GA : *Characterological traits of recovered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and agoraphobia. J Affect Disord* 1991 ; 23 : 113-117
  - 21) Starcevic V, Uhlenhuth EH, Fallon S, Pathak D : *Personality dimension in panic disorder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J Affect Disord* 1996 ; 37 : 75-79
  - 22) Hyler SE, Reider, RO : *PDQ-R :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 -Revised, New York,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 1987
  - 23) Eysenck HJ & Eysenck SGB : *The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London : Hodder & Stoughton, 1975*
  - 24) 시빌 아이젠크 · 이현수 : *성격차원 검사 성인용, 중앙적성 출판부* 1985
  - 25) Zimmerman M : *Diagnosing personality disorders : A review of issues and research methods. Arch Gen Psychiatry* 1994 ; 51 : 225-245
  - 26) 채영래 : *한국판 성격장애 검사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대한신경정신과학회지* 1995 ; 34(1) : 267-274
  - 27) Tyrer P, Seivewright N, Ferguson B, Murphy S, Johnson AL : *The Nottingham study of neurotic disorder. Effect of personality status on response to drug treatment, cognitive therapy and self -help over two years. Br J Psychiatry* 1993 ; 162 : 219 -226
  - 28) Flick SN, Roy-Byrne PP, Deborah S, Cowley, Molly M, Dunner D :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in a mood and anxiety disorders clinic : Prevalence, comorbidity, and clinical correlates. J Affect Disord* 1993 ; 27 : 71-79
  - 29) 채영래 · 이정태 · 김보연 · 이성필 : *공황장애 환자의 성격특성과 임상적 의의. 정신 신체의학* 1995 ; 3(2) : 139-146
  - 30) Pollack MH, Otto MW, Rosenbum JF, Michael W : *Personality disorders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 Association with childhood anxiety disorders, early trauma, comorbidity, and chronicity. Compr Psychiatry* 1992 ; 33(2) : 78-83
  - 31) Neenan P, Felkner J, Reich J : *Schizoid personality traits developing secondary to panic disorder. J Nerv Ment Dis* 1986 ; 174(8) : 483
  - 32) Reich J, Braginsky : *Paranoid personality traits in a panic disorder population : a pilot study. Compr Psychiatry* 1994 ; 35 : 260-264
  - 33) Hoffart A, Martinsen EW : *The effect of personality disorders and anxious-depressive comorbidity on outcome in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nd with panic disorder and agoraphobia. J Pers Disord* 1993 ; 7 : 304-311
  - 34) Sanderson WC, Weltzer S, Beck AT, Betz F : *Prevalence of personality disorder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nd dysthymia. Psychiatry Res* 1992 ; 42 : 93-99
  - 35) Mavissakalian M, Hamann MS : *DSM-III personality disorder in agoraphobia. Compr Psychiatry* 1986 ; 27(5) : 471-479
  - 36) Mavissakalian M, Hamann MS : *Correlates of DSM-*

- III personality disorder in panic disorder and agoraphobia. Compr Psychiatry 1988 ; 29 : 535-544*
- 37) Hirschfeld RMA, Klerman GL, Lavori P, Keller MB, Griffith P, Coryell W : *Premorbid personality assessments of first onset of major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1989 ; 46 : 345-353*
- 38) Nystrom S, Lindegard B : *Predisposition for mental syndrome : A study comparing predisposition for depression, neurasthenia, and anxiety. Acta Psychiatrica Scand 1975 ; 51 : 69-76*
- 39) Rosenbaum JF, Biederman J, Gersten M, Hirshfeld DR, Meminger SR, Merman JB :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with panic disorder and agoraphobia : a controlled study. Arch Gen Psychiatry 1988 ; 45 : 463-470*